

초기 청소년의 얼굴 자기상, 성격 특성 및 심리적 부적응 간 관계*

김혜수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석사졸업생

박지수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석사졸업생

김진영[†]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상의 새로운 측정 기법인 역상관 기법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자기상을 시각화하고, 시각화된 얼굴 자기상이 자기(self)와 관련된 성격특성 및 심리적 부적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82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얼굴 자기상을 생성하기 위해 본인과 유사한 이미지를 고르는 양자택일의 역상관 기법을 활용한 자기상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성격특성과 심리적 부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존중감 척도, 사회불안 척도(SAS-A), HEXACO-60의 하위척도 중 외향성 척도, 부모 및 또래 애착 검사 개정본(IPPA-R), 소속감 지향성 척도(BOS), 한국판 청소년용 긍정적 정신건강 척도 그리고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청소년의 얼굴 자기상 긍정 값은 자기존중감 및 외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또래 애착의 하위 요인인 화 및 소외감 그리고 긍정적 정신건강의 하위요인인 심리적 부적응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바람직성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역상관 기법, 얼굴 자기상, 초기 청소년, 심리적 부적응, 자기존중감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수정 및 보완한 것임.

본 논문은 서울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2021-0166).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진영 /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 (01797)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 E-mail : kimjy@swu.ac.kr

자기상(self-image)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스스로가 내리는 답으로, Coombs(1981)는 자기상을 개인의 생활 전반에 걸친 경험을 통해 갖게 되는 스스로에 대한 생각과 느낌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청소년기의 자기상은 발달 과제인 자아 정체감 형성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요인으로 제시되어(Erikson, 1968), 청소년기의 자기상은 현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의 자기상은 초기, 중기, 후기별로 그 특징이 다르다. 특히, 만 11-14세의 초기 청소년기(Rice & Dolgin, 2008) 자기상은 다른 청소년기에 비해 더욱 불안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초기 청소년은 자기(self)의 개별적이고 피상적인 부분의 통합을 시작하지만 이를 일관적이고 현실적인 자기 체계로는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Harter, 1999).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초기 청소년기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임과 동시에 최대의 기회를 지닌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자기상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경우, 청소년은 자신의 발달 궤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후의 발달과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이는 초기 청소년의 자기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자기상을 측정하는 기존의 도구인 자기 보고식 검사는 자기상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며(Moon, Kim, Kim, Kim, & Ko, 2020), 응답자의 자기기만(Paulhus, 1984)과 부족한 자각 능력(Nisbett & Wilson, 1977)으로 인해 응답이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자기 보고식 검사에서는 자기상을 전체가 아닌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측정하므로, 자기상의 중요한 정보를 놓칠 가능성

이 있다. 그리고 자기개념에 어떠한 태도가 연합되어 있는지 측정하는 암묵적 연합 검사(Greenwald & Farnham, 2000)와 같은 암묵적 측정 도구는 자기상과 관련된 자동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자기상을 측정한다고 보기 어렵다(Moon et al., 2020). 더하여, 자기상은 단어 자체에 상(像)이라는 시각적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언어적인 방법으로 측정된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이라 할 수 있는 인상을 언어보다 그림 혹은 사진의 형태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Chang, Nemrodov, Lee, & Nestor, 2017). 따라서 우리 자신에 대한 지각도 시각적인 형식, 즉 자기에 대한 정신적 그림일 가능성이 높다(Kaplan, Rossell, Enicott, & Castle, 2013).

최근 사회 심리학에서 정신적 표상의 시각적 근사치를 제공하는 데에 역상관 기법(Reverse Correlation method: RC)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Moon et al., 2020). 역상관 기법의 자극 세트는 무선적으로 제시되며, 자극의 신호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참여자이다(Brinkman, Todorov, & Dotsch, 2017). 즉, 본 기법은 참여자가 자극을 식별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신호를 지정하는 표준 절차와는 반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역상관’이라고 명명된다(Brinkman et al., 2017). 각 시행에서 참여자는 제시되는 자극 중 어떤 것이 목표로 하고 있는 분류(예: 성별, 인종, 성격 특성)에 가까운지 자신의 정신적 표상과의 유사성에 기초해 판단한다(이채린, 2020). 선택된 자극들의 평균을 통해 산출된 하나의 이미지는 분류 이미지(Classification Image: CI)라고 명명된다.

역상관 기법을 사용하여 자기상을 측정할 경우, 자기상을 측정하는 기존 도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상관 기법은 자기상을 시각화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기상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역상관 기법은 자기상의 하위요인을 따로 두지 않고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자기상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 도구로 측정할 수 없었던 자기상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이 역상관 기법으로 측정하는 자기상에는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역상관 기법을 사용한 자기상 검사는 자신의 얼굴과 유사한 자극을 선택하여 자기상을 측정하므로 참여자의 응답 왜곡 가능성, 자기기만과 부족한 자각능력이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얼굴 자기상(facial self-image)은 역상관 기법을 사용하여 시각화한 자기상으로, 이는 자기상의 타당한 시각적 근사치로 간주된다(Moon et al., 2020). Moon, Kim, Kim, Kim과 Ko(2020)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이 형성한 자기상이 타인이 형성한 자기상보다 자신과 더욱 유사하다고 평정하였다. Kim, Moon, Kim, Kim과 Ko(in submission)는 참가자가 형성한 얼굴 자기상과 선호하는 얼굴의 표상 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얼굴 자기상이 자기상을 반영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특히, 박지수(2021)는 역상관 기법을 활용한 자기상 검사가 청소년기인 만 12-18세 청소년의 자기상을 측정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역상관 기법을 활용한 자기상 검사가 성인뿐만 아니라 초기 청소년의 자기상을 측정하는 데에 타당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상은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사회적 영역과 심리적 영역에서 기능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Petersen, Schulenberg, Abramowitz, Offer, & Jarcho, 1984). 자기상의 형성 및 발달

에는 애착 대상과의 상호작용 패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애착(attachment)은 한 개인이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를 의미한다(Bowlby, 1973). Collins와 Read(1990)는 자녀들이 부모를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반면, 부모를 거부적이고 무관심하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상을 가진다는 것을 제시했다. 청소년기에 진입하면서 애착 대상이 부모에서 또래로 옮겨가는데 O’Koon(1997)은 긍정성이 낮은 자기상을 가진 청소년이 또래 애착을 통해 자기상의 긍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기개념이 긍정적일수록 또래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높았다(Deković & Meeus, 1997).

자기상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발달될 경우, 자기 존중감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동과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tersen et al., 1984). 긍정적인 자기상은 자신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인 자기 존중감(Rosenberg, 1979)을 증가시키고, 긍정적인 정서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olmes, Lang, & Shah, 2009). 반면, 자기상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발달될 경우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부정적인 자기상은 청소년기 우울(Erkolahti, Ilonen, Saarijärvi, & Terho, 2003), 섭식장애 (Steinhausen & Vollrath, 1993)와 같은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하여, 과도하게 부정적이고 왜곡된 자기상은 사회불안의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Hackmann, Clark, & McManus, 2000).

자기상은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패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자기상은

대인관계를 선호하는 정도 그리고 대인관계를 맺고자 하는 동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먼저, 개인이 사회적 교류를 추구하는 성향인 외향성(Costa & McCrae, 1992)이 높을수록 자기 존중감과 자신감이 높은 반면, 부정적인 자기평가로부터 파생되는 정서인 수치심은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Pilarska, 2018). 또한, 대인관계를 맺고자 하는 동기로 소속감 지향성이 있는데 이는 개인이 타인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성장 지향(growth orientation)과 사회적 공허감을 메우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결핍 감소 지향(deficit-reduction orientation)으로 나뉜다. 성장 지향은 개인적 성장과 자기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부정적 자기상인 사회불안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결핍 감소 지향은 개인적 성장과 자기 수용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자기평가인 자기 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avigne, Vallerand & Crevier-Braud, 2011).

한편, 선행연구에서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과 사회적 바람직성 간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있다. 즉, 역상관 기법을 활용한 자기상 검사에서의 응답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식되는 응답으로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김진원, 2020; 박지수, 2021; 이채린, 2020; Moon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도 역상관 기법을 활용한 자기상 검사가 자기 보고식 검사와 달리 응답이 편향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검사인지를 사회적 바람직성과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의 관계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역상관 기법을 활용하여 측정된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과 자기(self)와 관

련이 있는 변인 간의 관계를 보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 검증할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은 자기 존중감, 외향성, 부모 및 또래 애착 중 신뢰감과 의사소통, 소속감 지향성 중 성장 지향, 긍정적 정신건강 중 정신적 웰빙과 정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2)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은 사회불안, 부모 애착의 소외감과 또래 애착의 화 및 소외감, 소속감 지향성 중 결핍 감소 지향, 긍정적 정신건강 중 심리적 부적응과 부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3)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은 사회적 바람직성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82명(남자 41명, 여자 41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담임교사의 협조를 통해 부모의 동의하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자료수집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초등학교생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학생만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과도기로 급격한 신체적 변화, 인지적 발달, 학교급의 변화, 대인관계 및 자기개념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변화들이 동시에 그리고 빠르게 일어난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자기상은 청소년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므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자기상은 현재의 혼란을 잘 이겨내는 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측정도구

자기상 검사: 역상관 기법을 활용한 과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기에 대한 정신적 표상인 자기상의 시각적 근사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역상관 기법을 사용하였다. 참여자는 얼굴 자기상(Self-CI)을 생성하기 위해 본인과 유사한 이미지를 고르는 양자택일의 역상관 기법을 활용한 과제를 수행하였다. 과제에서 제시되는 이미지는 기본 이미지(초등학생 6학년 얼굴 사진 100장을 합성하여 제작된 이미지)에 무작위로 노이즈를 덧씌운 자극이다. 참여자는 화면에 제시되는 두 가지 얼굴 자극

중 본인과 더 닮은 이미지를 고르는 것을 300회 시행하였다. 참여자는 검사 실시 전에 연령과 성별을 입력하므로, 검사에는 참여자의 연령에 일치하는 이미지가 제시된다. 본 연구에서 여아 참여자에게는 한국 여자 초등학생에 부합하는 얼굴 자극이 제시되었고, 남아 참여자에게는 한국 남자 초등학생에 부합하는 얼굴 자극이 제시되었다. 과제에 제시되는 300쌍의 이미지는 참여자마다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었다. 참여자들은 각 시행마다 3초의 제한 시간 이내에 응답해야 했으며, 참여자가 3초 이내에 응답하지 못할 경우 반응은 결측치로 처리되며 다음 자극으로 자동으로 넘어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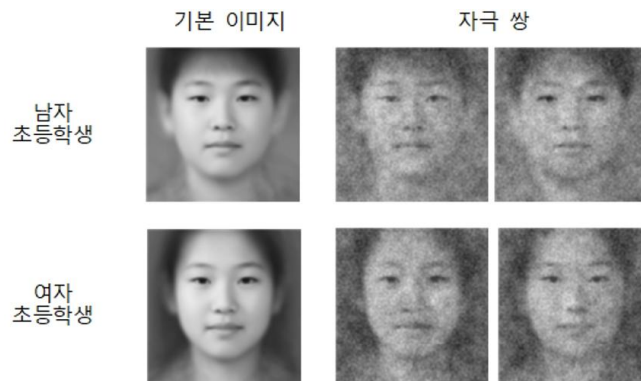


그림 1. 기본 이미지와 역상관 기법에서 사용된 자극 쌍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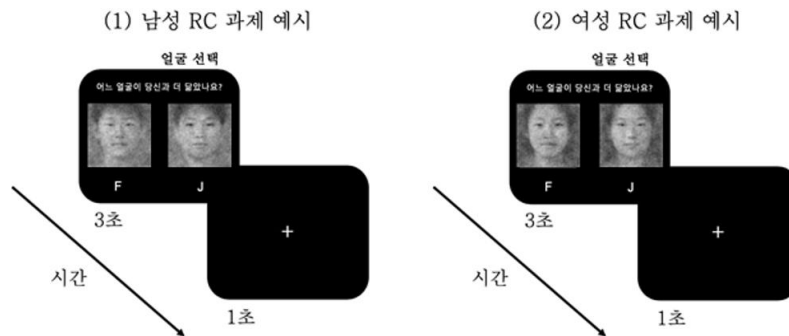


그림 2. 역상관 기법을 활용한 자기상 검사의 자극 제시의 예시

다. 참여자의 얼굴 자기상 제작은 RC 과제 완료 후 R(R Core Team, 2019)의 'rcicr' 패키지(Brinkman et al., 2017; Dotsch, 2016)를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각 자극의 제시 방법은 김진원의 연구(2020)에서 사용된 방법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자기존중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전반적인 자기 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자기 존중감 척도를 전병제(197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0문항(예: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이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점 = 대체로 그렇지 않다, 4점 = 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10~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존중감이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77로 나타났다.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LaGreca와 Lopez(1998)의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 SAS-A)를 양재원, 오경자, 양윤란(200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8문항(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겁난다)이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18~9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3으로 나타났다.

외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외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Ashton과 Lee(2009)가 제작한 HEXACO-60의 하위척도 중 외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0문항(예: 주로 혼자 하는 일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일을 더 좋아한다)이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런 편이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10~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향적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2로 나타났다.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및 또래 애착 검사(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수정한 개정본(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Revised-Version: IPPA-R)을 사용하였다. 이 중 부모 애착 척도는 옥정(199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또래 애착 척도는 황숙영(200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먼저, 부모 애착 척도의 문항은 총 25문항으로 신뢰 차원 10문항(예: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 의사소통 차원 9문항(예: 부모님은 나의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소외 차원 6문항(예: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 결코 그렇지 않다, 5점 = 항상 그렇다)로 구성되며 총점의 범위는 25~125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신뢰감 .90, 의사소통 .92, 소외감 .69이었으며, 전체는 .95로 나타났다. 또래 애착 척도의 문항은 총 25문

항으로 신뢰 9문항(예: 내 친구들은 정말 이야기하기 편한 친구들이다), 의사소통 9문항(예: 내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친구들은 내 의견을 들어준다), 화 및 소외감이 7문항(예: 나는 내 친구들에게 화가 난다)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 결코 그렇지 않다, 5점 = 항상 그렇다)로 구성되며 총점의 범위는 25~125점이다. 황숙영(2007)의 연구에서 상관 계수가 낮은 9번 문항을 제외하고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도 9번 문항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신뢰감 .81, 의사소통 .85, 화 및 소외감 .77이었으며 전체는 .88로 나타났다.

소속감 지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소속감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Lavigne, Vallerand와 Crevier-Braud(2011)가 개발한 소속감 지향성 척도(Belongingness Orientation Scale: BO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성장 지향 5문항(예: 나의 대인관계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과 결핍 감소 지향 5문항(나의 대인관계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혼자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7점 Likert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장 지향과 결핍 감소 지향 각각 총점의 범위는 5~35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성장지향 .79, 결핍감소지향 .71로 나타났다.

한국판 청소년용 긍정적 정신건강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긍정적 정신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Keyes (2005, 2007)의 긍정적 정신건강 모델 및 평가척도와 임영진, 고영건, 신희천, 조용래(2010)의 긍정적 정신건강 척도를 참고하여 김진영, 문기범, 고영건(2020)이 제작한 25문항의 한국판 청소년용 긍정적 정신건강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신적 웰빙 척도(Mental Well-being Scale: MWS)와 심리적 부적응 척도(Psychological Maladjustment Scale: PMS)의 두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적 웰빙 척도는 총 13문항(예: 내 성격이 대체로 좋다고 느꼈다)으로,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1점 = 전혀 없음, 6점 = 매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13~78점이다. 심리적 부적응 척도는 총 9문항(예: 자주 긴장하고 불안해진다)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 전혀 아니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9~45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정신적 웰빙 .87, 심리적 부적응 .77로 나타났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기대하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고자 하는 욕구인 청소년의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현주와 권희경(2020)이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은 총 8문항(예: 내가 한 결정에 대해 후회해 본 적이 없다)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며 총점의 범위는 8~40점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59로 나타났다.

상기한 자기보고식 검사들은 초기 청소년 기인 만 11-14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되거나 사용된 적이 있는 척도로만 구성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R statistics(R Core Team, 2019) 과 IBM SPSS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자료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김진원(2020)의 긍정값 데이터를 사용하여 참여자가 생성한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positive value)을 도출하였다. 김진원(2020)의 긍정값 데이터와 얼굴 긍정값의 계산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지수(2021)의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다. 먼저, 김진원(2020)이 긍정값 데이터를 도출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긍정적인 속성을 가진 이미지를 고르는 RC 과제에서 100명이 1번 이미지 쌍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왼쪽 이미지를 10명이 선택하고 오른쪽 이미지를 90명이 선택한다면 1명 이미지 쌍에서 왼쪽 이미지의 긍정값은 0.1, 오른쪽 이미지의 긍정값은 0.9가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300쌍의 이미지 긍정값을 본 연구 참여자의 얼굴 자기상에 적용하여, 참여자의 얼굴 자기상 긍정값을 계산하였으며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1번 이미지 쌍의 왼쪽 이미지 긍정값이 0.9, 2번 이미지 쌍의 왼쪽 이미지 긍정값이 0.5라고 가정했을 때, 참여자가 얼굴 자기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1번과 2번 이미지 쌍에서 모두 왼쪽 이미지를 고르게 되면, 참여자의 얼굴 자기상 긍정값 평균은 0.7이 도출된다. 이러한 계산법을 사용하여 300회 시행의 RC과제에 응답한 참여자의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

을 도출하였다. 참가자가 이미지를 고르지 못해도 자극이 3초 이후에 넘어가기 때문에 평균을 사용하여 긍정값을 도출하였다. 긍정값이 낮을수록 얼굴 자기상이 부정적인 것으로, 긍정값이 높을수록 얼굴 자기상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의 얼굴 자기상 긍정값과 심리적 특성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은 자기 존중감, $r = .27, p < .05$, 및 외향성, $r = .24, p < .05$,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또래 애착의 하위요인 중화 및 소외감, $r = -.24, p < .05$, 심리적 부적응, $r = -.22, p < .05$, 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은 그 외의 심리적 특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적 바람직성과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이 자기 존중감, 외향성, 부모 및 또래 애착 중 신뢰감과 의사소통, 소속감 지향성 중 성장 지향적 관점, 정신적 웰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라는 연구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이 사회불안, 부모 애착의 소외감과 또래 애착의 화 및 소외감, 소속감 지향성 중 결핍 감소 지향, 심리적 부적응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낼 것이라는 연구 가설 2 역시 부분

표 1. 주요 변인들 간 상관계수 (N=82)

	1	2	3	4	5	5.1	5.2	5.3	6	6.1	6.2	6.3	7	8	9	10	11
1	-																
2	.27*	-															
3	.00	-.41***	-														
4	.24*	.60***	-.66***	-													
5	.07	.56***	-.44***	.40***	-												
5.1	.05	.55***	-.40***	.33***	.96***	-											
5.2	.04	.46***	-.38***	.37***	.95***	.86***	-										
5.3	-.16	-.57***	.50***	-.45***	-.82***	-.71***	-.67***	-									
6	.14	.39***	-.21	.48***	.24*	.24*	.20	-.22*	-								
6.1	.14	.33*	-.09	.39***	.21	.23*	.21	-.11	.91***	-							
6.2	.01	.22	-.07	.37**	.11	.10	.12	-.07	.88***	.77***	-						
6.3	-.24*	-.47***	.44***	-.45***	-.30**	-.31**	-.17	.44***	-.59***	-.38**	-.24*	-					
7	.03	.55***	-.12	.50***	.33**	.33**	.33**	-.20	.51***	.47***	.48***	-.25*	-				
8	-.06	-.07	.35**	-.17	-.10	-.06	-.09	.18	.01	.06	.05	.14	.16	-			
9	.03	.66***	-.56***	.69***	.54***	.51***	.48***	-.51***	.50***	.47***	.34**	-.45***	.51***	-.10	-		
10	-.22*	-.53***	.50***	-.46***	-.50***	-.46***	-.39***	.60***	-.31**	-.21	-.07	.59***	-.22*	.30**	-.51***	-	
11	-.04	.48***	-.50***	.49***	.43***	.45***	.40***	-.28**	.15	.10	.05	-.27*	.30**	-.04	.43***	-.37**	-
M	.51	31.09	44.11	35.00	97.96	40.41	33.49	11.94	93.33	35.78	32.74	11.20	24.44	21.16	54.79	19.49	26.50
SD	.02	44.11	14.65	6.60	18.58	7.74	8.27	4.07	13.90	5.92	6.65	4.43	5.13	5.57	11.27	6.03	4.18

주. 1. 얼굴 자기상 긍정감 2. 자기 존중감 3. 사회불안 4. 외향성 5. 부모예측 5.1. 신뢰감 5.2. 의사소통 5.3. 소외감 6. 포대예측 6.1. 신뢰감 6.2. 의사소통 6.3. 화 및 소외감 7. 성장 지향 8. 결핍 감소 지향 9. 정신적 웰빙 10. 심리적 부적응 11. 사회적 바람직성
* $p < .05$, ** $p < .01$, *** $p < .001$.

적으로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이 사회적 바람직성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상의 새로운 측정 기법인 역상관 기법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자기상을 시각화하고, 시각화된 얼굴 자기상이 자기(self)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역상관 기법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자기상을 시각화하였으며,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을 도출하여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과 심리적 특성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첫째, 청소년의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과 자기 존중감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기 존중감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이므로,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과 자기 존중감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Kim, Moon, Kim, Kim과 Ko(in submission)의 연구에서 외모가 매력적일수록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실제 외모,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 그리고 임상심리 전문가 3명이 평정한 심리적 적응 수준 간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임상심리 전문가 3명이 평정한 심리적 적응 수준은 실제 외모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더하여, 참가자가 형성한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얼굴의 긍정값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Kim et al., in submission). 뿐만 아니라, 얼굴 자기상과 심리

적 특성 간 관계를 탐색한 다른 연구에서도 얼굴 자기상이 외향성 및 자기에적 특성과 같은 성격 특성을 반영한다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Maister, De Beukelaer, Longo, & Tsakiris, 2021; Steiner, Levy, Brandenburg, & Adams, 2021).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지수의 연구(2021)에서도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이 자기 존중감 및 불안과 같은 심리적 특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역상관 기법을 활용한 자기상 검사에서 단순히 선호하는 얼굴이 아니라 자신과 유사한 얼굴을 골랐다는 것을 시사하며, 역상관 기법을 사용한 자기상 검사가 단순히 신체적 외모를 넘어 자신에 대한 태도가 반영될 수 있는 검사라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은 외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자기개념과 외향성이 관련 있다고 제시된 선행연구(Garaigordobil & Bernarás, 2009)의 결과와 일치한다. 외향적인 개인은 긍정적 사건에 더 강하게 반응하며(권석만, 2008), 불안을 다소 적게 느낀다(Kring & Gordon, 1998). 특히, 외향성이 높은 청소년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활발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는다(김송이, 2011).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외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높아 긍정적인 자기 지각을 유지하는 것(모화숙, 박미라, 하대현, 2013)으로 알려져 있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과 또래 애착의 하위요인인 화 및 소외감 간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래 애착의 화 및 소외감은 친구가 자신에게 무관심하다는 느낌, 친구와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 자신이 친구에게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과 관련이 있다.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은 또래 애착의 화 및 소외감 요인과 대응되는 부모 애착의 소외감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또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보다 청소년의 자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의 애착 대상이 부모로부터 또래로 옮겨가며, 청소년의 적응에 또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제안한 Laible, Carlo와 Raffaelli(2000)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또래 관계 문제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심리 개입과 지원이 제공된다면 청소년의 얼굴 자기상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은 긍정적 정신 건강 중 심리적 부적응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부적응은 섭식 조절, 주의집중의 어려움, 규칙 위반과 관련된 행동통제 문제와 불안, 긴장, 슬픔과 관련된 심리적 불편감을 포함한다. 심리적 부적응이 측정하는 요인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인 자기상이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Donnellan, Trzesniewski, Robins, Moffitt, & Caspi, 2005), 우울(Erkolahti et al., 2003), 섭식문제(O'Dea, 2006)와 관련이 있다고 제시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Sullivan(1953)은 스스로가 가치 없고, 유능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자기개념이 부적응적인 행동의 기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청소년은 스스로를 잘 통제하지 못하거나, 불안이나 긴장과 같은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할 때 자신을 위로하기 보다는 자신을 비난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지인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에게 위로가 아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심리적 부적응을 포괄적으로 측정하였으므로 심리적 부적응 중 구체적으로 어떤 하위 요인이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과 관련이 있는지 후속 연구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섯째,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은 사회적 바람직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의 내적 신뢰도가 다소 낮았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역상관 기법을 사용하여 자기상을 측정하는 것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 외의 심리적 특성과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긍정값 데이터는 성인이 성인의 이미지를 보고, 그에 대한 긍정값을 매겨 생성된 데이터이다. 기본 이미지(base image)에 노이즈가 겹쳐져서 다양한 이미지가 생성되므로 정확히는 노이즈에 긍정값이 매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노이즈와 청소년의 기본 이미지가 겹쳐진 이미지가 청소년에게 제시된 것이다. 긍정적 차원으로 볼 수 있는 심술궂다(mean)/좋다(nice)를 얼굴에서 유추하는 것은 만 3세의 아이들도 어른들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Cogsdill, Todorov, Spelke, & Banaji, 2014)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인이 생성한 긍정값 데이터를 청소년에게도 적용하였다. 그러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과 정신적 웰빙 및 불안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보고되었으나(김진원, 2020), 본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

로 했을 때에는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과 정신적 웰빙, 사회불안, 부모애착, 소속감 지향성 및 정신적 웰빙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박지수(2021)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동일하게 김진원(2020)이 제작한 긍정값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은 자기 존중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제시된 반면에 정신적 웰빙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이 긍정값을 매긴 긍정값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후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초기 청소년기의 특성상 성인에 비해 자기상이 불안정할 수 있다. 자기상은 전 생애에 걸쳐 발달하는 변인이지만, 특히 초기 청소년기는 자기의 일관적이고 현실적인 통합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자기상이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이다(Harter, 1999). 따라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과 정신적 웰빙은 유의한 상관관이 나타났으나(김진원, 2020) 본 결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정신적 웰빙이 좋더라도 성인보다는 자기상이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반면에 심리적 부적응과 자기상이 유의한 상관관이 나타났다는 것은 초기 청소년기가 스트레스에 취약한 시기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이 자기 존중감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는 것은 자신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가 얼굴 자기상에 잘 반영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외향성과 또래 애착이 얼굴 자기상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는 것은 또래 관계가 청소년기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역상관 기법을 사용하여 초기 청소년의 자기상을 시각화한 최초의 연구이다. 역상관 기법을 사용하여 정신적 표상이나 자기상을 시각화하는 연구는 최근에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청소년기는 추상적 사고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지 완성된 시기 아니므로 성인에 비해 심리적 특성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말과 글로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시각적인 역상관 기법을 활용한다면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연구는 역상관 기법 연구의 연령층을 초기 청소년으로까지 확장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역상관 기법을 활용한 자기상 검사가 청소년의 응답 편향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검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의 자기상은 주로 자기 보고식 검사 및 면접과 같은 언어적인 평가를 통해 측정되었다. 이러한 검사들은 응답자의 자기기만(Paulhus, 1984)이나 부족한 자각 능력(Nisbett & Wilson, 1977)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에 반해 역상관 기법을 활용한 자기상 검사는 본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도 사회적 바람직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김진원, 2020; Moon et al., 2020). 이러한 결과는 역상관 기법을 활용한 자기상 검사가 참여자의 방어적 태도, 사회적 바람직성 및 부족한 자각 능력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강점이 있는 역상관 기법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추후 방어적 태도가 높거나 자각 능력이 부족한 임상군의 자기상

을 확인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언어의 제약이 비교적 적고 방법이 매우 간단하다는 강점을 지닌 역상관 기법을 사용한 자기상 측정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조현병 환자의 정신적 표상을 시각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inkman et al., 2019). 또한 역상관 기법을 활용한 검사는 섭식장애 집단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시각화하는 데에 사용되었다(Douglas, Balas, & Gordon, 2021). 임상군은 아니지만 건강 식이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건강음식집착증(orthorexia nervosa)이나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신감이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역상관 기법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시각화하고 왜곡된 신체상을 확인하는 데에 유용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Maister et al., 2021; Pauzé et al., 2021). 또한, 역상관 기법을 사용하여 자기상을 시각화했을 때, 자기애적 특성 중 하나인 거대 자기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자기상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Steiner et al., 2021). 따라서 역상관 기법을 사용한 자기상 검사는 기존에 자기보고식 검사로 측정하기 어려웠던 임상군의 자기상을 측정하는 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언어를 사용하는 검사에 취약한 어린 아동 혹은 언어 장애 혹은 조현병에 해당하는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도 역상관 기법을 활용하여 자기상을 시각화할 수 있는지 검증하여, 이를 활용한다면 보다 다양한 집단의 자기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시각화된 자기상과 자기 관련 심리적 특성 간 관계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얼굴 자기상의 긍정값과 자기 존중감, 외향성, 또래 애착 중 화 및 소외감 그

리고 심리적 부적응이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를 통해 얼굴 자기상이 자기에 대한 태도는 물론 타인과의 관계, 성격 특성, 정신 건강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하여, 선행연구에서 얼굴 자기상은 정신적 웰빙, 우울, 사회불안, 마키아벨리즘과 같은 다양한 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진원, 2020; 이채린, 2020; Moon et al., 2020). 이러한 결과는 역상관 기법을 통해 생성된 얼굴 자기상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얼굴 자기상과 관련된 속성의 정보량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는 접근법이 유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자기 존중감은 자기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이며, 본 연구에서 얼굴 자기상 긍정값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추후, 얼굴 자기상에 긍정적인 속성의 정보량 외에 역상관 기법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뢰성, 유능성, 매력도와 같은 정보량 역시 정량화시킨다면 얼굴 자기상에 대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초기 청소년기에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특성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상관 기법을 사용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반복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얼굴 선호도를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참여자는 두 얼굴 자극 중 자신과 유사한 이미지를 선택하여 자기상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는 얼굴 자극을 선택할 때, 자신과 유

사한 이미지가 아닌 선호하는 이미지를 자신과 닮았다고 선택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얼굴 선호도를 통제한 후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김송이 (2011). 초등학생의 Big Five 성격유형과 정서지능 및 사회적 능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영, 문기범, 고영건 (2020). 한국판 청소년용 긍정적 정신건강 척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4), 825-836.
- 김진원 (2020). 시각화된 자기상과 정신건강 간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모화숙, 박미라, 하대현 (2013). Big5 성격요인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7(3), 761-781.
- 박지수 (2021). 청소년의 시각화된 자기상 및 부모상과 정신건강 간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재원, 오경자, 양윤란 (2008). 아동,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측정: 한국판 청소년 사회불안척도(K-SAS-A)의 타당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4), 861-878.
- 옥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시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채린 (2020). 어둠의 3요소 성격과 자아상 간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권희경 (2020). 한국 청소년 대상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34(2), 447-470.
- 임영진, 고영건, 신희천, 조용래 (2010). 한국인의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33-257.
- 전병제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9-129.
- 황숙영 (2007). 부모애착, 부모 감독, 또래관계가 중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Ashton, M. C., & Lee, K. (2009). The HEXACO-60: A short measure of the major dimen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4), 340-345.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rinkman, L., Dotsch, R., Zondergeld, J., Koevoets, M. G., Aarts, H., & van Haren, N. E. (2019). Visualizing mental representations in schizophrenia patients: A reverse correlation approach. *Schizophrenia Research: Cognition*, 17, 1-7. <https://doi.org/10.1016/j.scog.2019.100138>
- Brinkman, L., Todorov, A., & Dotsch, R. (2017). Visualising mental representations: A primer on noise-based reverse correlation in social psychology.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 28(1), 333-361.
- Chang, C. H., Nemrodov, D., Lee, A. C., & Nestor, A. (2017). Memory and perception-based facial image reconstruction. *Scientific Reports*, 7(1), 1-9.
- Cogsdill, E. J., Todorov, A. T., Spelke, E. S., & Banaji, M. R. (2014). Inferring character from faces: A developmental study. *Psychological Science*, 25(5), 1132-1139.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Coombs, A. W. (1981). Some observations on self-concept theory and research. In Lynch, M. D., Norem-Hebeisen, A. A., & Gergen K. J. (Eds.), *Self-Concept: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pp. 5-16), MA: Ballinger.
- Costa, P. T., & McCrae, R. R. (1992). *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PI-R) and NEO five factor inventory (NEO-FFI)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Deković, M., & Meeus, W. (1997). Peer relations in adolescence: Effects of parenting and adolescents' self-concept. *Journal of Adolescence*, 20(2), 163-176.
-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obins, R. W., Moffitt, T. E., & Caspi, A. (2005).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Psychological Science*, 16(4), 328-335.
- Dotsch, R. (2016). rcicr: Reverse-correlation image - 349 classification toolbox. Retrieved from <http://www.rondotsch.nl/rcicr/>.
- Douglas, V., Balas, B., & Gordon, K. (2021). Facial femininity and perceptions of eating disorders: A reverse-correlation study. *PLoS one*, 16(8), 1-14.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Erkolahti, R., Ilonen, T., Saarijärvi, S., & Terho, P. (2003). Self-imag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adolescents in a non-clinical sample. *Nordic Journal of Psychiatry*, 57(6), 447-451.
- Garaigordobil, M., & Bernarás, E. (2009). Self-concept, self-esteem, personality traits and psychopathological symptoms in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visual impairment.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12(1), 149-160.
- Greenwald, A. G., & Farnham, S. D. (2000).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to measure self-esteem and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6), 1022-1038.
- Hackmann, A., Clark, D. M., & McManus, F. (2000). Recurrent images and early memories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6), 601-610.
- Harter, S.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ew York: Guilford.
- Holmes, E. A., Lang, T. J., & Shah, D. M. (2009). Developing interpretation bias modification as a “cognitive vaccine” for depressed mood: imagining positive events makes you feel better than thinking about them verball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8(1), 76-88.
- Kaplan, R. A., Rossell, S. L., Enticott, P. G., & Castle, D. J. (2013). Own-body perception

- in body dysmorphic disorder. *Cognitive Neuropsychiatry*, 18(6), 594-614.
- Keyes, C. L. M. (2005). Mental illness and/or mental health? Investigating axioms of the complete state model of heal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3), 539-548.
- Keyes, C. L. M. (2007). Promoting and protecting mental health as flourishing: A complementary strategy for improving national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62(2), 95-108.
- Kim, J., Moon, K., Kim, S., Kim, H., & Ko, Y. (in submissi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representations of self and social evaluation: Examining the validity and usefulness of visual proxies of self-image.
- Kring, A. M., & Gordon, A. H. (1998). Sex differences in emotion: expression, experience,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686-703.
- LaGreca, A. M., & Lopez, N. (1998). Social anxiety among adolescents: linkages with peer relations and friendship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6(2), 83-94.
- Laible, D. J., Carlo, G., & Raffaelli, M. (2000).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to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1), 45-59.
- Lavigne, G. L., Vallerand, R. J., & Crevier-Braud, L. (2011). The fundamental need to belong: On the distinction between growth and deficit-reduction orient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9), 1185-1201.
- Maister, L., De Beukelaer, S., Longo, M., & Tsakiris, M. (in press). The Self in the Mind's Eye: Revealing how we truly see ourselves through reverse correlation. *Psychological Science*.
- Moon, K., Kim, S., Kim, J., Kim, H., & Ko, Y. (2020). The Mirror of mind: Visualizing mental representations of self through reverse correlation. *Frontiers in Psychology*, 11(1149), 1-8.
- Nisbett, R. E., & Wilson, T. D. (1977). Telling more than we can know: Verbal reports on mental processes. *Psychological Review*, 84(3), 231-259.
- O'dea, J. A. (2006). Self-concept, self-esteem and body weight in adolescent females: a three-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4), 599-611
- O'Koon, J. (1997).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in late adolescence and their relationship with self-image. *Adolescence*, 32(126), 471-482.
- Paulhus, D. L. (1984). Two-component models of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3), 598-609.
- Pauzé, A., Plouffe-Demers, M. P., Fiset, D., Saint-Amour, D., Cyr, C., & Blais, C.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orthorexia nervosa symptomatology and body image attitudes and distortion. *Scientific Reports*, 11(1), 1-15.
- Petersen, A. C., Schulenberg, J. E., Abramowitz, R. H., Offer, D., & Jarcho, H. D. (1984). A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 (SIQYA):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2), 93-111.
- Pilarska, A. (2018). Big-five personality and aspects of the self-concept: variable-and person-centered approach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7(1), 107-113.

- R Core Team. (2019).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Retrieved from <https://www.R-project.org>.
- Rice, F. P., & Dolgin, K. E. (2009). 청소년 심리학 (제 12판)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s and culture 12th ed*), (정영숙, 신민섭, 이승연 역). 서울: 시그마 프레스. (원전은 2008년에 출판)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Y: Basic Books.
- Steiner, T. G., Levy, K. N., Brandenburg, J. C., & Adams Jr, R. B. (2021). In the mind of the beholder: Narcissism relates to a distorted and enhanced self-imag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3, 1-8. <https://doi.org/10.1016/j.paid.2020.110608>
- Steinhausen, H. C., & Vollrath, M. (1993). The self image of adolescent patients with eating disor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3(2), 221-227.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원고접수일 : 2021. 06. 23.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9. 09.
게재결정일 : 2021. 09. 30.

The Relationships between Early Adolescent Facial Self-Image, Personality Traits,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Hye-soo Kim¹⁾

Ji-su Park²⁾

Jin-young Kim^{3)†}

¹⁾Department of Child Studies, Seoul Women's University M.A

²⁾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M.A

³⁾Department of Child Studies, Seoul Women's University Professor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visualize early adolescent self-image using reverse correlation (RC) method, a new measurement method for self-image examination,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visualized self-image (facial self-image), personality traits associated with self,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82 sixth-grade students. To generate facial self-image, the participants performed a two-image forced choice RC task where they selected an image that bore a stronger resemblance to themselves. Personality traits associated with self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were measured using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the Korean version of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10 items from the HEXACO-60,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Revised-Version, the Belongingness Orientation Scale, the Korean Version of the Adolescent Positive Mental Health Scale, and the Social Desirability Bias Scale for Korean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positive value of adolescent facial self-imag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and extraversion. (2) The positive value of adolescent facial self-imag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nger and alienation of peer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of positive mental health. (3)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dolescent facial self-image and social desirability. These results were compared with previous research findings an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reverse correlation method, facial self-image, early adolescents, psychological maladjustment, self-esteem

* This paper is a revision and amendment of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 Corresponding Author : Jin-young Kim / Department of Child Studies, Seoul Women's University / 621 Hwa-rangro, Nowon-gu, Seoul, 01797 Korea / E-mail : kimjy@swu.ac.kr